



## 성장속도를 가속화 하는 고성지부

길지않은 역사를 가진 고성지부가 머지않은 장래에 양돈협회의 중추적인 지부가 될 것으로 많은 회원들이 예상하고 있다.

1983년 5월 24일, 그때까지 마산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고성지역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많은 양돈가들을 규합하여 양돈협회 고성지부를 창립하였다. 연륜으로 보면 끝에서부터 세는게 빠르지만 성장속도로 보면 앞에서부터 몇번째 안에 들 것이라고 자량이 대단했다.

그동안 진 병권 초대 지부장과 김 동곤 2대지부장이 이끌 어오다 현재의 한 문수 지부장

이 3대지부장으로 피선되었는데, 현재는 33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외화(外華)보다는 내실(內實)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느낄수 있었다.

지난 2월 1일 거행한 '86년도 정기총회에서 협회 일에 무성의한 7명의 회원을 제명하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지만 지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원의 정예화를 꼭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올해를 지부도약의 첫 해로 목표를 정한 고성지부는 새로

운 회원을 확보해 회원 숫자를 50여명으로 늘린후, 실제로 움직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막강한 지부로 육성하는 것이 모든 회원들의 바램이라고 했다.

현재 고성지역 양돈농가중 약 70% 정도가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더욱 참여율을 높여 양돈생산자 단체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한 문수 지부장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협회에서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 보이지 않는 혜택이 많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작년에 협회

에서 건의하여 실현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방안 및 축사 자율 소독조치 등 많은 일들이 협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임승차 하고도 무임승차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사실 전양돈인들이 모두 협회에 참가한다면 그만큼 생산자 단체인 협회의 힘이 커지고 일하기도 쉬울 것이다.

### 출하 전담 직원 확보

고성지방은 인근에 월 800두를 소비하는 충무와 월 1,500두를 소비하는 거제 및 마산, 부산 등 대단위 소비도시를 끼고 있어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수월한 출하를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출하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지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주햄과의 출하계약만 완료되면 안정적인 양돈경영은 보장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튼튼한 기반위에 좋은 조건으로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중에 있는 계약과정을 보면, 출하체중은 90kg에서 110kg까지를 출하할 수 있으며 단가는 회사측에서는 부산 도매시장의 평균가를 제시하는 반면, 협회측에서는 최고가를 주



장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계약이 고성지부 회원들에겐 무척이나 중요하고 대단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지방의 돈가는 부산과 마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데 앞으로 지부에서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이 지역 정육업자들은 걱정이 대단하다.

앞으로의 출하계획은 전 회원들의 출하 예정두수를 파악하여 출하계획대로 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빠르면 3월내지 4월부터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각적인 기금마련사업 모색

아무리 타당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도 자금의 지원이 없으면 실천에 옮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성지부는, 지부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한 끝에 그중 우선 몇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산 도매시장 및 진주햄에 출하하는 회원들에게 두당 300원씩의 협찬금을 받을 예정이며, 회원들이 공동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얻어지는 이익중 5%를 제약회사로부터 협찬금으로 받고 있다. 또한 지부장

및 몇몇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료회사로부터 약간의 지부 운영비를 협찬받고 있다.

앞으로 기계기구 등도 공동으로 구입할 예정인데 공동으로 구입하면 가격도 싸게 살 수 있으며 협회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는 회원들의 사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회원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쓰고 있는데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사료로 권장할 예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 각종 세미나 수시로 개최

고성지부의 '86년도 중점사업은,

첫째,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주 참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무엇인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일에 한번 지부사무실에 들리던 회원은 두번 들리고 두번 들리던 회원은 더 자주 들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비치할 예정이라 한다.

둘째, 선진지 견학을 정기화할 예정이다. 고성지역은 아



직 최신 시설을 갖춘 양돈장이 없어서 많은 회원들이 새로운 시설과 사양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견학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주므로 회원들에게 단체로 양돈 선진지를 방문하여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 계획출하로 안정적인 양돈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수급선을 확보한 후 계약에 의한 납품을 하도록 하여 협회를 통한 출하의 일원화를 이루어 양돈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출하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넷째, 우수 종돈 확보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많은 회원들이 우수 종돈 확

보를 위해 검정소를 통해 다수의 검정돈을 분양받고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경매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일반농장에서 분양받으면 검정돈보다 훨씬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부에서는 공동으로 교통편을 마련, 많은 회원들이 적은 부담으로 경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다섯째, 독자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고성지부는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에 맞춰 독자적인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그 방법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 순회 경매 실시했으면

검정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른지역 회원들보다 두당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더 든다는 김 태준 감사는 “남부지방에 검정소를 하나 더 설립하든지, 그렇게 못하면 최소한 3~4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순회 검정돈 경매를 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하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검정돈의 이미지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관리하여 계속 좋은 종돈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출품조건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농장은 출품을 못하도록 규제하여 구입농장이 선

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한 악덕 종돈업자가 받을 불일 수 없도록 협회에서는 우수 종돈장은 소개하고 불량 종돈장은 서슴없이 종돈장 이름을 공개해 소규모 양축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앞으로 종돈장에서는 이런 양축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신의와 책임으로 종돈 분양을 해야 될 것이다.

유 재순 총무는 “중앙회에서 새로운 정보와 사양기술 등을 좀 더 빠르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너무나 정보의 빈약을 느끼고 있다”며 회원들의 사육규모가 전업화되면 지부운영이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의 질문에 상냥하게 대

답하던 천 옥자 직원은 사무실만큼이나 깔끔한 용모로 “우리 지부가 규모는 적지만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느냐?”며 앞으로 일년후에 다시 찾는다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고성지부를 성장시킬 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백한기, 김동곤, 김찬

영

지부장 : 한문수

부 지부장 : 김부평, 이명렬

감사 : 이찬수, 김태준

운영위원 : 박정배, 조정문,

윤인효, 김효일,

박연옥, 김상근,

김재호, 도태곤,

이상관

총무 : 유재순

## 독자투고안내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태어 무슨글을 보내달라고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나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 실패담, 임상수기, 건의사항, 양돈기술상담, 세무상담, 지부소식등 어떤 내용이던 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술시간이

없으시다면 본지 기자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 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아무쪼록 알찬 양돈 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채택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겠습니다.